

“삶=공부=일상”...자기안에 보물있다

산문박의 禪

30년 수행 달공거사 조홍식 翁

30년 넘게 수행을 해오면서 '달공(達空) 거사'로 더 잘 알려진 조홍식(80)거사.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자 불문학(佛文學)계에서 존경받는 원로학자인 조 거사는 서울 법륜사 불일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신심이 높은 불자들의 불자다.

조 거사를 만난 것은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던 24일 오전 하남시 춘공동 그의 정원주택에서다. 80의 나이에도 하기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건강한 모습이 오히려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자꾸 수행, 수행하는데 수행은 무슨... 그냥 공부하는 거지.” 조 거사는 수행이라는 말 대신 ‘공부’라는 표현을 썼다. 30년이란 세월도 입에 담지 말라고 했다. 왜 그랬는지 의문은 나중에야 풀렸다.

조 거사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8살 때 풀이 아파 묘향산 보현사의 조그만 암자인 ‘법왕대’에 요양차 가 있으면서부터다. 이곳에서 조 거사는 밥 짓고 설거지하며 행자생활로 세 철을 냈다. 관음기도를 하고 스님에게 ‘초발심자경문’을 배우며 불교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묘향산에 풀기 전과 후가 하늘과 땅처럼 판이했지. 딱딱한 겁을 지나도 만나기 어려

운 불법을 만났다는 것은 분명 행운이었어. 묘향산에서 얻은 그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울 줄이야...”

57년 성균관대 교수로 부임하면서 조 거사는 생활인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묘향산에서의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틈틈이 참선을 하면서 구도의 열정을 달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50대 초반 구산스님, 송담스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본격적인 수행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5시부터 1시간 동안 요가를 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이췘꼬’라는 화두를 들고 좌선에 빠져들었다. 88년 대학을 정년퇴임하고 나서는 더욱더 수행에 매진했다. 법륜사에서 철야정진을 한 것이 몇 번인지 셀 수도 없다. 공주 갑사 무문관 등 전국의 이

“30년 수행했다는 말 자체도 경계요 할턱 거림이지. 그러나 수행이라는 말을 내뱉는 것이, 수행한답시고 행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어.”

말은 계속 이어졌다. “심여장벽(心如磨)해야만 ‘가이입도(可以入道)’ 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헛된 소리가 아니지.” 마음이 굳은 장벽과 같아야만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거사는 얼마 전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토틀 짓는 것을 포기했다. 대신 집 앞마당에 흰한 정자를 지어놓았다. 집 뒤편의 아담한 산. 앞쪽의 높은 단풍과 저 혼자 유유자적하고 있는 벤치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자에 올라앉아 있자니 무릉도원이 여말을 느낄 만도 하다.

그렇다. 조 거사에게는 토틀도 경계(집착)였다. 여기저기 써주면 글도 끊었다. 애지중지하던 사슴 키우는 일도 그만두었다. ‘공부’에 방해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자유는 곧 ‘심’이 아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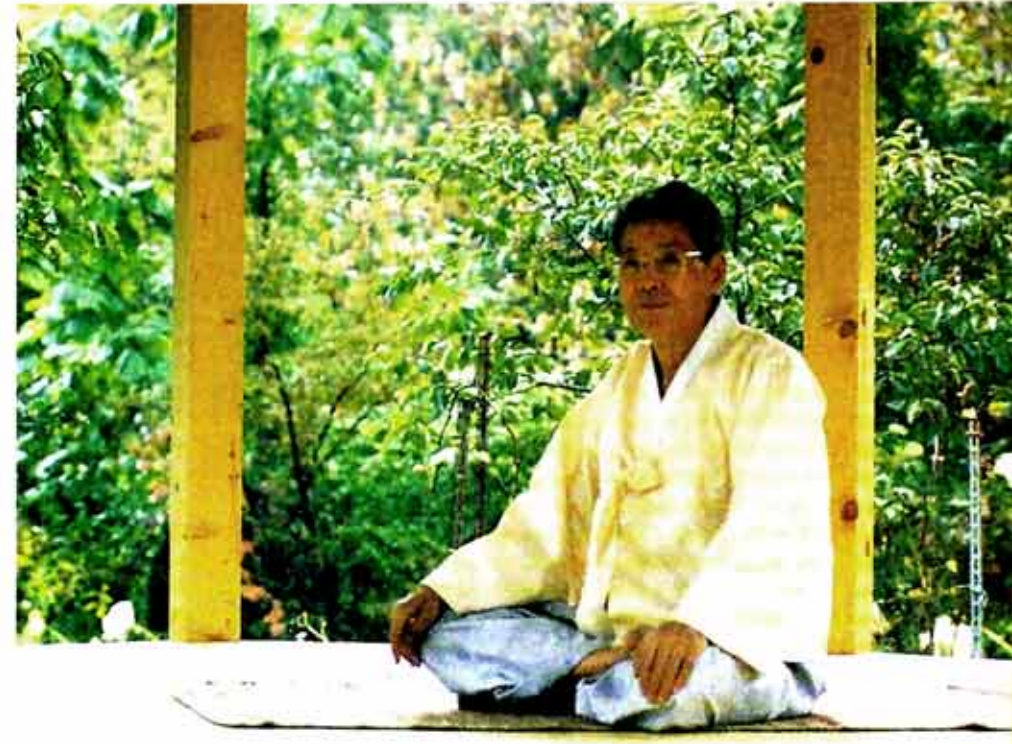
망은 정직하다고 했다. 그 진리를 터득했기 때문일까. 조 거사는 채소, 콩, 고구마, 고추 등 발작물을 가꾸면서도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있었다. 땅에 대한 계(戒)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것이다.

“계는 자신을 지키는 첫번째 조건이지. 그리고 계를 지키면서 정(定)에 들면 마음이 안정되고 기운이 없으니 저절로 혜(慧)가 생기지. 그런데 오늘날의 문명은 이것을 방해하기만 해. 현대문명을 모두 거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것에 끌려 다녀서는 안 돼. 자기 안에 보물이 있는 줄 모르고 어디서 그것을 찾겠나”

조 거사의 자유는 그의 마음에 있었다. 그는 불교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있다고 했다. ‘얻고 있다’는 진행형의 말부. 그것은 아직도 ‘공부’ 중이고, 또한 멈춰서도 안되고, 살아 있는 한 끝이 없는 것이 바로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조 거사에게 ‘공부’는 일상이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하는 것은 이미 ‘공부’가 아니라고 했다.

5평 남짓한 조 거사의 서재에는 불교책 외에 다른 전공서적은 눈에 띄지 않았다. 서재 한 가운데 놓인 큼직한 방석 하나에서 조 거사의 삶이 어땠는지 읽었다. 망상을 없애면 절로 흥이 난다고 했던가. 수행을 굳이 ‘공부’라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공부’하는데 제일 필요해. 나머지는 모두 자기 마음에 달렸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을 따진



◇ 조홍식 거사는 '의내명주(衣內明珠)'를 강조했다. 자기 안에 감춰진 불성을 찾는 것이 참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은 수행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새벽4시 예불 올리고
한시간씩 요가정진
틈틈이 '이췘꼬' 좌선
30여년 한결같이**



◇ 최근에는 영어와 불어로 번역된 경전에 빠져있다

를난 수행처를 찾아 다녔다. 무엇을 얻고 싶어하였을까.

호르리집 없는 자새로 찾잔을 입으로 가져가던 조 거사가 뜻밖의 말을 던졌다. “다 자기 기만이야. 세월이 사람을 속이고, 마음이 자기를 속이는 거지. 사람들은 풀이 구속당하면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풀은 자유로우면서도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겠소?”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자유, 조 거사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는 무엇이고, 모두가 자기 기만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얘긴가.

조 거사는 달마스님의 말씀이라며 ‘외식제언(外息諸緣) 내심무천(內心無塵)’이라는 글을 써 보았다. ‘밖으로는 경계(인연)를 쉬고 안으로는 할턱거림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는 것은 이미 ‘공부’ 하길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부처를 찾는 것보다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 중요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우뚝바라가 보면 뭐하나. 자기 마음에 우뚝바라를 피워야지...”

조 거사는 스스로 ‘공부’하지 않고 외연에 집착하는 세태를 경계했다. 불교는 ‘참조’가 아닌 ‘발견’의 진리임을 잘 알기에.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에 ‘공부’만큼 지혜를 주는 것은 없다고 믿기에 더더욱 안타깝다.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푸근한 표정. 기자를 마중나올 때 우산 두 개를 손에 들고 나왔던 자상함. 땅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검게 그을린 큼직한 손. 이렇게 자연스레 우려나는 조 거사의 인간미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학자로서의 면모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선생이 드러나는 것이 있었다. 이미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라는 느낌. 그리고 30년 넘은 세월을 일심으로 정진하며 수행해 온 조 거사의 삶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수행의 교과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를 수없이 들었다.

글=한명우 기자(mwhan@buddhan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nia.com)

조홍식 거사는?

조 거사는 1921년 현재 거거하고 있는 경기 하남시 춘공동(당시는 경기도 광주군)에서 태어났다. 1947년 국립 서울사범학교와 1951년 성균관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한 조 거사는 57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74년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57년부터 성균관대 조교수로 강단에 첫발을 디뎠으며, 61년 한국 불어불문학회 이사, 72년 한국 불어불문학회 회장, 74년 성균관대 문과대학장 등을 역임하고 1986년 정년퇴임해 지금은 명예교수로 있다.

86년 국민훈장목련장을 받았으며, 저서로는 《한불사전》(공저)과 자신의 불교적 철학을 담은 에세이집 《달처럼 맑아치려》, 번역서 《부소의 참회록》(노바르의 제2의 삶) 《달로의 인간조건》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위기의 식과 지성인의 행동’ ‘현대문학과 불교’ 등 다수.

현재 서울 법륜사 불일회 회장과 보조사양연구원 이사, 교수불자연합회 고문을 맡고 있으며, 순하여 인제대 교수인 장남과 중·고교에서 각각 교편을 잡고 있는 두 딸이 있다.

정세채와 떠나는 선·식·기·행

석창포차

선식(禪食)은 지친 수행생들에게 활력을 주고 정신을 맑게 하여 학습효과를 높여준다. 더욱이 수행생 최고의 적(敵)인 잠을 물리칠 수 있다. 수행생이 현재의 식사량을 슬기롭게 줄일 수만 있다면 학습 성적은 식사량에 반비례할 것이다. 즉 많이 먹으면 성적이 내려가고 적게 먹으면 성적이 향상된다. 또한 많이 먹으면 잠이 많아지고, 적게 먹으면 잠도 줄어든다. 이는 마치 상승률이 죽 한 그릇을 먹고도 하루에 1~2시간씩 잠을 자고 기도할 수 있었을 정도로 기와 힘이 넘치는 것과 같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먹이는 것이 학습능력을 돕는 것이라 생각해 많이 먹게 한다. 결국 낮에는 학교에서 졸고, 귀가해서는 책상 위에서 꾸벅꾸벅 졸게 하는 꼴이다. 여기에 아버자들은 한 수 더 보탠다. 아침을 안 먹고 서둘러 나가는 아이를 보고, 잠시 힘든 모양이라도 보약을 지어다 준다. 이렇게 과식과 졸음으로 반복되는 나날은 결국 자녀로 하여금 입시를 망치게 하는 꼴이다.

백양사를 중창한 만암 선사는 동진 출가하여 남들이 손쉽게 때는 초발심자경문을 외우지 못해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뒤지게 되었다. 고민하는 만암 스님을 보고 노스님

집중력·기억력 향상 '수험생 간식'

이 뒷산에 가서 석창포를 채취해 끓여 먹어 보라고 하여 석창포를 먹고 나서부터는 《관음경》을 통과하고 어떤 경전이건 모두 통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로 만암 스님은 하루의 반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루종일 참선한 선사들보다 더 높은 경지를 이루셨다고 한다.

식사를 즐기고, 이에 곁들여서 만암스님께서 애용한 석창포차를 수행생이 마신다면, 수행일이 다가와도 결코 불안한 일이 아니다.

■ 약산식 연구가. 《신사에 기원 특별한 식단이 있다》 저자

만드는 법(1~2인분)

재료 석창포10g, 물 3컵, 감초 5g, 대추 5개

요리법

1. 석창포, 감초, 대추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다.
2. 대추는 씨를 발라 놓는다.
3. 석창포와 물의 비율을 1대 20으로 하여 감초와 대추살을 넣고 80도 물에서 30분 동안 은근히 달인다.
4. 준비된 차에 기호에 따라 벌꿀을 넣으면 된다.

효능 《신농본초경》에는 석창포를 오래 먹으면 귀와 눈이 밝아지고 목소리가 고와지며 몸이 따뜻해져 오래 살게 된다고 했다. 또 뇌신경의 피로를 씻어 주어 건망증을 근원적으로 치료하여 집중력과 기억 능력을 향상시킨다.

SALE 좋은 잠자리가 젊음을 줍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제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아무리 쓰는 후대만 년 돌침대가 아닙니다. 최고급 천목, 최고의 기능 **리빙스톤 돌침대**는 선택받은 귀화민의 것입니다.

- ▶ 광공 뒤편서 온돌방처럼 쓰는 리빙스톤 돌침대!!
- ▶ 200만원으로 돌침대를 쓰시겠습니까? 스프링 매트리스 침대를 사시겠습니까?
- ▶ 좋은 잠자리의 잠이 보약입니다.

- 침대에 주사를 놓는다고요? 찔레기, 면지, 알레르기, 습기에서 완전 해방
- 아직도 침대에 전기장판을 쓴다고요? 온도는 자유롭게... 4계절용 돌침대
- 돌침대에서 원적외선, 음이온이 쏟아져 배기는 느낌이 없고, 척추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리빙스톤 (옥스톤)

※ 단체 주문 환영 ※ 단체구입은 직접 상담받습니다. ☎ 02)424-9427/2203-7821

리빙스톤 돌침대의 효능...

- ◆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 ◆ 초경과 의 물리치료 기능으로 몸속 깊숙이 뽀름을 풀어줍니다.
- ◆ 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줄 수 있습니다.
- ◆ 고구마시대,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 - 리빙스톤 돌침대로
- ◆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하고, 쌓여있는 노폐물을 빼 줍니다.
- ◆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백을 차단하였습니다.
- ◆ 한달 전기로는 12,000원 안팎(1달 10시간 사용 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 (2인용)
- ◆ 특허받은 전자파 완전 제거장치 침대에 설치

◆ 아침건강 - 배게가 좌우합니다! 머리 혈액순환 촉진으로 머리를 맑게하는 **목수배게**

▶ 자고 나면 머리가 땅하고 ▶ 통증이 잡히고 어깨가 빠르니 합니까? ▶ 선택도 간편한 목수 배게 배게를 바꾸십시오.

35,000 → 12,000원 (택배비는 별도)